

科學技術賞 受賞所感

榮光을 先親에게

國務總理賞受賞

高麗大學校 教授 金 貞 欽

아냈습니다. (父親은 後에 獨立有功大統
領表彰을 받았습니다)

저를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
여러 先輩님과 여러 同僚들에게도 感謝
드리고 싶습니다. 또 저의 4年間에 걸친
第1次外國留學, 2年間에 걸친 第2次外遊
合計 6年間 外國에 머무르게 許容해준
高麗大學校에도 感謝합니다. 또 東洋式
思考方式으로는 좀 멋멋치 못한 것 같습
니다만, 저의 妻에게도 感謝하고 싶습니
다. 結婚하고 滿3年이 지날까 말까할 때
美國留學을 가서 4年間 있는 동안 두 갓
난아이를 데리고 넉넉치 못한 돈으로 生
計를 꾸려나가야 했던 妻에게 오늘의 榮
光의 一部는 돌려 주어야 할 것 같습니
다. 結婚生活 3年에 生離別生活 4年間이
니 도대체 結婚이란 무엇인가 하는 疑問
마저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. 가장 아
름답고 즐거워야 했을 아까운 4年間的
靑春을 기다림속에서 지내야 했던 妻의
心情을 생각하면 고마움에 눈물이 날 정
도였습니다.

끝으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
韓國物理學會에 感謝드립니다. 1962年以
來 줄곧 物理學會任員의 한 사람으로 物理
學會와 困難을 같이 해 온 저에게는 純粹
科學不毛 또는 不在의 韓國風土에서 그
래도 生長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, 純粹
性을 지키려고 苦難을 같이 하고 같이 努
力해 온 物理學會의 여러 同志, 여러 同
僚들에게도 오늘의 이 榮光을 나누어 드
리고 싶습니다.

鬪士들은 오히려 疎外만 당했던 것 같았
습니다. 이런 쓰라린 體驗에서 父親은
獨立해서 生을 營爲할 수 있는 法學이나
醫學, 또는 工學을 해야 한다고 主張하
셨던 것입니다. 저는 그 때 마침 20世紀
物理學이 展開시킨 눈부신 發見들 즉,
哲學의 基本思想마저도 바꾸어놓은 相
對性理論이라든가 物質과 輻射, 波動性
과 粒子性이 엮어내는 極微의 世界를 다
루는 量子力學의 神秘性등등에 心醉되어
이것의 探究야말로 一生을 두고 挑戰해
볼 價値있는 일이라고 決心먹었던 차였
었습니다. 1947年 國立서울大學校入學試
驗을 앞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2,3週間이
나 冷戰을 벌였습니다. 아버지는 굽히지
않는 아들의 意見에 드디어 하루는 平壤
監獄以來의 獨立運動同志이며 軍政時代
의 立法議員인 李某氏를 찾아가 相議하
신 모양입니다. “李議員에게가 現代는
科學의 世紀이고, 또 아들의 將來는 아
들이 定하여야 한다더라” 하시면서 若干
쓸쓸해 하셨지만 快히 저의 物理學專攻
을 承諾해주셨습니다. 그 아버님은 6.25
動亂때 제가 美軍 某野砲部隊 測量員으
로 있는 사이에, 肺炎으로 溫陽避難民收
容所에서 每日每日 아들의 所息을 기다
리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半年後에야 알

榮譽의 國務總理賞을 타게 되어 펴 기
쁩니다. 이 기쁨의 感謝를 먼저 저를 아
껴 주시고, 키워주시고 지도해주신 權寧
大·趙淳卓·尹世元·李基億先生님께 드
리고 싶습니다. 解放直後의 混頓속에서
도 오직 眞理의 探究만을 위해 物理學이
라는 가시밭길을 택하신 先生님들의 高
邁하신 姿勢에서 저의 物理學에 대한 情
熱도 한층 더 타오른 것 같습니다. 그러
고 또 6·25動亂때 溫陽避難民收容所에
서 쓸쓸히 아들의 所息도 모른채 病死하
신 先親께도 感謝드립니다.

解放直後 中國에서 歸國하여 아무런 生
活基盤도 없는 서울에서 오직 아들의 教
育만을 위해 갖은 苦難과 苦病을 참고
이겨나가신 父親님의 생각이 머리에서
떠나지 않습니다. 解放直後의 일입니다.
父親은 그 自身이 겪은 오랜 體驗에 비
추어, 解放이 되었던 안되었던간에 사
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恒産이 있어야 하며
그러하기 위해서는 眞理探究니 正義니
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자기 먹을 것은 자
기가 마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아버지는
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 法學이
나 醫學, 하다 못해 土木이나 建築學같
은 工學을 工夫하여야 한다고 主張했습
니다. 그도 그렇듯이 父親은 己未獨立運
動때 同志들과 糾合 密會中 日警의 襲擊
을 받아 체포, 銃傷을 입은채 (人事不省
이 된채) 체포되어 3年間 平壤監獄에서
獄苦를 치렀던 것입니다. 獨立運動과 收
監의 履歷은 그 後에도 여러가지面에서
父親의 一生을 마치게 한 것 같습니다.
제記憶에도 七, 八세까지의 어린 時節을
除外하고는 펴 貧困하게 산 것 같습니다.
解放이 되어 온갖 政客들이 서울에 모여
들어 제각기 愛國을 論하고 新生國家의
政治界에서 활약을 할 때, 父親과 같이 囚
와 獄살이로 獨立運動을 하신 많은 獨立

